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강 차 연[†]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애착관계를 탐색하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녀대학생 4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애착과 진로발달에 대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뒤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결정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부모 및 또래애착이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예언력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저학년이고 여학생의 경우 또래애착이 진로발달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는 반면, 고학년이 되면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애착만이 진로발달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이룰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고학년이거나 남학생인 경우 저학년이거나 여학생인 경우에 비해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주요어 : 진로결정, 진로정체감, 부모애착, 또래애착

† 교신저자 : 강 차 연 /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26번지
FAX : 979-1481 / E-mail : chaya@hanmail.net

인간발달과 심리적 적응에서 애착관계가 갖는 역할에 대해 발달심리학자들과 대인관계이론가들을 포함해 많은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이 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Ainsworth, 1989; Bowlby, 1982, 1988). 특히 Bowlby(1982)는 애착관계의 발달과 기능을 고려해보는 강력한 이론적 개념들을 제공하였다.

Bowlby에 의하면 애착이란 '안전감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영아가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라고 정의된다(장휘숙, 1997a ; Bowlby, 1988). 생후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장과정을 통해 양육자인 특정대상을 포함하여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애착은 전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 일생동안 인간을 포함한 주변의 대상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출생 이후 외부대상인 중요한 타인과의 경험이 정신세계로 내재화되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은 Fairbairn(1944, 1952)이다. 이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은 Bowlby(1988)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부모와 자신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내면화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표상체계를 이루어 이후 성인기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를 내적 수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애착인물이 유아의 편안함과 보호욕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대한 독립적 탐색욕구를 존중해 준다면 유아는 자기의 내적 수행모델을 가치있고 자기 신뢰적인 것으로 발달시킬 수 있지만 반면 부모가 유아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거나 유아의 탐색 시도를 거부

한다면 유아는 자신의 내적 수행모델을 무가치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수행모델은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거쳐 지속되면서 성격의 중심적 구성요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Marvin & Britner, 1999; 장휘숙, 1997a).

표면적으로 본다면 청소년의 애착은 이전 연령에서 보였던 애착패턴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를 비롯해 중요한 다른 성인들과의 애착관계를 안전과 지지를 제공하는 유대관계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을 구속하는 유대관계로 보고 이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달적으로도 청소년의 핵심과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Allen & Land, 1999; 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따라서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래와의 관계 및 친밀감이 더 높아지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환시기인 청소년기에서는 이전에 형성했던 애착의 기본적인 내적 수행모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애착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추상적 사고발달과 더불어 추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애착행동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혼란되고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나 소망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점으로도 애착관계를 고려하고 조망할 수 있는 세련된 인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목표수정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

하게 된다(Allen, Land, 1999; Bowlby, 1982, 1988; Kobak & Cole, 199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애착욕구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이 욕구와 행동을 점차 또래에게로 옮겨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전환은 양육자로부터 주로 보호와 지지를 받는 위계적 애착관계에서 쌍방이 보호와 지지를 주고 받는 또래 애착관계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사라진다고 보다는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맥락 내에서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외관상 보이는 또래에의 부적절한 의존은 또래를 애착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서투른 초기학습단계이기도 하다(Youniss & Haynie, 1992).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들은 애착의 발달적 계속성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Armsden과 Greenberg (1987) 등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안녕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애착인물과의 안정감과 이에 기초한 내적 수행모델은 신체상, 직업이나 교육목표, 그리고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적용영역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lack & McCartney, 1997; Dekovic & Meeus, 1977; Offer, Ostrov, Howard, & Dolan, 1992; O'Koon, 1977). 그리고 국내에서도 장휘숙의 연구(1997a)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구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시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된다고 하였다. 이는 애착이 영아기에서부터 학령전기에 이르기까지 관계맺는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에도 우정, 특히 청소년기의 친밀한 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형제자매나 다른 혈육과의

연대감을 나타내고 나아가 성인의 성적 대상과의 만남에 중심특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ylsma, Cozzarelli, & Sumer, 1997; Waters, Weinfield, & Hamilton, 2000). 이러한 결과는 Herzberg 등 (1999)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바, 애착관계의 내면화된 표상은 계속해서 청소년과 성인 발달 동안에도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의 기본원리라도 일치한다.

부모들이 중요한 애착인물로서 또래와 자리를 바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청소년기와 청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계속 중요시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기신뢰, 개성화, 자아상, 자아존중감, 학업 및 직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그리고 배우자 선택과 결혼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Vivina(2000)는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양식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불안정하게 애착된 청소년들일 경우 안정적으로 애착된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불안, 그리고 걱정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불안정 애착은 낮은 대학적응과 친밀감 발달과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O'Brien, Friedman, Tipton, 그리고 Linn(2000)은 5년에 걸쳐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 진로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포부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감 발달을 이끌고 이는 다시 진로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Noom, Dekovic, 그리고 Meeus (1999)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유능감, 학업유능감, 자존감, 문제행동 및 우울기분이 자율성 및 애착과 정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또래애착검사(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개발한 Armsden 과 Greenberg(1987) 역시 지각된 부모와 또래애착 모두의 질은 심리적 안녕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Helsen 등(2000)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문제와 관련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 지지가 줄고 또래 애착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하긴 하였으나 부모의 지지는 여전히 청소년기 동안의 정서적 문제의 좋은 지표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친구 지지의 효과는 지각된 부모 지지수준에 약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부모지지 집단은 약간의 정적 친구지지효과를 보여주고, 낮은 부모지지 집단은 부적인 친구지지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비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Dekovic과 Meeus(1997)는 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에 대한 지각과 긍정적인 자기개념 모두가 만족스러운 또래관계를 설명해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Greenberg 등(1983) 역시 부모에 대한 애착특성이 청소년의 복지를 예언하는데 있어 또래애착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Laible, Carlo, 그리고 Raffaelli (2000)는 부모 및 또래애착점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모 및 또래애착점수가 모두 높은 청소년들이 공격성과 우울에서는 가장 낮고 공감은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점수가 모두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잘 적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또래애착은 높지만 부모애착은 낮은 청소년들은 부모애착은 높지만 또래애착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애착이 부모애착보다 청소년

적응에 비교적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앞서의 연구들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Beest와 Baerveldt(1999)는 부모애착과 지각된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래와의 관계형성능력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후기 청소년기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이후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감형성과 직업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Felsman & Blustein, 1999). 더구나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사회로 들어서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선택과 결정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은 개인에게 있어 성인기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제는 개인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소년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개념체계와 잘 통합되는 일관적인 진로목표와 이를 통해 성공적인 진로선택으로 완결되는 진로계획을 분명하게 세운다(Blustein, 1997; Brooks, Cornelius, Greenfield, & Joseph, 1995).

진로와 관련한 여러 이론들 중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고, 다른 신체 및 정신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성숙해진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애착이론을 기초로 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와 결정과정을 발달적인 맥락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진로의사결정이 친밀한 대인관계, 특히 일차적으로는 친밀한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영선, 1999; 이희영, 1999; Blustein, Walbridge, Freidlander, & Palladino, 1991; O'Brien, 1996). 즉 진로발달을 형성해나가는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가족 및 관계적 요인들이 주는 영향력을 포함시켜, 이 요인들을 발달적으로 초점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된 주제는 기능적인 가족관계, 예를 들어,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이 진로를 포함해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를 탐색해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받기 위해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련주제는 친밀한 대인관계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선택과 가치체계에 대한 확고한 참여를 포함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숙달행동을 발달시켜 준다는 것이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Eigen, Harman 및 Hartman(1987)은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가족환경을 매우 경직되고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구조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정서적 유대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극단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Lopez(1989)는 부모와 갈등이 없는 관계가 높은 진로정체감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지표임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세대간 가족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개별화가 덜 되었다고 보고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미결정 점수가 더 높다(김봉환, 1996) 부모애착이 진로발달 및 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특성이 구체적인 발달과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은 발달해나가면서 또래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정서적 에너지도 친구들에게 더 기울이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Erickson같은 발달심리학자들은 인생발달과제 중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표현에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안전기지를 또래로 확장되어 제공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스스로를 확신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 속에서의 역할모델로 기능하며, 자존감을 지지해준다(Beest & Baerveldt, 1999; Halsen, Vollebergh, & Meeus, 2000; Young, Antal, Bassett, Post, DeVries, & Valach, 1999).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협상하는 능력은 부모인물과의 분리개별화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체감 형성과정 동안 일어나는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즉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를 통해 부모관계에서 받았던 안정감을 이제는 또래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과적으로 친밀한 친구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과 세상을 훨씬 깊이있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진로선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Josselson, 1987). 따라서 가까운 관계는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채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또래관계가 주는 연계감은 진로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전감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결국은 가까운 친구가 주는 편안함은 진로결정시 하게 되

는 광범위한 탐색, 위험감수, 그리고 사회적 숙달감을 촉진할 수 있다(Felsman & Blustein, 1999; Blustein et al., 1991)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행동은 전체 진로발달선상에서 주로 계획과 확신(commitment)의 두 단계에 초점이 맞춰진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계획단계에서 대학생들은 불만족의 근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불만족에 적절히 대응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이 중요하며, 자기에 대한 탐색, 즉 자아개념 및 과업에 관련한 행동적 노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자기탐색과 정보수집은 이후 자신과 관련하여 진로정체감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신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개념이 종합된 자아개념과 진로정체감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것에 대해 친구나 부모 등과 같은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얻게 된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실행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탐색하며, 동시에 이 선택을 좁혀 나가면서 결정화된 진로 정체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회영(1999)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 두 독립변인들이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양은주와 한종철(1999)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연구한 결과, 진로와 가정의 역할을 병행하기 위해 자신

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잘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기학과 한종철(1998)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성이 성숙한 진로태도에 더 중요한 변인이며, 경제적인 외적 보상보다는 성취감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내적 가치가 성숙한 진로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진로발달과 애착이론의 발달적 맥락에 대한 관심의 부각으로 인해 또래애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로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부모 및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도 진로발달보다는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도 다소 일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진로와 관련해 또래와 부모애착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본 Felsman과 Blustein(1999)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탐색하고 직업선택에 몰두하고 확신하는데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제시되었으며, 직업발달에 있어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발달과정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국내 연구들(김동준, 1997; 이영선, 1999; 허자영, 1996)과 차이가 없다는 외국 연구(Felsman & Blustein, 1999)의 결과는 사회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와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진로에 있어서도 여성이 직업조직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

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정체감이 남성에게 비해 취약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임정빈 외, 1997). 한편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대학 3, 4학년 때부터 시작되며,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3학년부대라고 본다는 연구결과(박경 외, 1998)는 대학에 입학한 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적용하는 1, 2학년 시기와 구분될 수 있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심리적 변인 중 가족 및 또래관계 요인을 포함시켜 이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성별 및 학년별로 규명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 및 또래애착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밝히고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주된 관심으로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을 가진 가족관계가 대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위한 안전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진로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검토해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관계에서 받았던 안전감을 또래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애착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와 또래와의 애착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을 더 편하고 자유롭게 하게 해주며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부모와 또래애착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 상대적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9월 한달 동안 4년제 대학(서울 및 청주소재)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심리학관련 전공 및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수업시간에 설문지에 응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시켜 총 499명의 학생들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은 성별로는 여학생 259명과 남학생 240명으로 구분되며, 학년별로는 저학년(1, 2학년) 223명과 고학년(3, 4학년) 276명으로 구분된다. 평균연령은 21.43세(SD=2.40)이다.

2. 측정도구

1) 부모 및 또래 애착

애착이란 광범위한 의미에서 볼 때 영아가 특정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라고 정의된다. 애착은 애착관련 경험, 감정, 사고에 대한 관련정보를 조직화하고 그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반대로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는 일련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규칙으로서 영아기부터 아동기를 거쳐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표상이다(Bowlby, 1988). 본 연구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또래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서적 유대 수준을 보고자 한다.

부모 및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또래 애착척도(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보고식이며, 부모 27문항과 또래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애착을 반영한다.

이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계수가 .87-.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91, 또래에 대한 애착은 .90이었다.

2) 진로결정수준

진로를 결정했다 함은 일반적으로 현재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 즉 수준을 말한다(김봉환 외, 2000).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r(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척도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김봉환(199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Osipow 등의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계수 .90으로, 그리고 김봉환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계수가 .88로 나타나 척도가 상당히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채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마지막 문항을 빼고 총 18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처음 2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항 3-18을 역으로 채점하였으므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제반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 또는 생각을 말한다(김봉환, 2000).

연구대상자들의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olland,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봉환의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 18개 문항으로서 원래 척도에서는 '그렇다'와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이 4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채점을 역으로 실시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고, 흥미분야가 뚜렷하며, 자신의 성격이나 재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 과

1.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

대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애착수준을 상하 33%로 나누어 상중하로 구분한 뒤 일원변량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하였다. 표 1은 부모애착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부모애착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고 진로정체감도 분명해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정체감이 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2. 또래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

대학생들의 또래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애착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하였다. 표 2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또래

〈표 1〉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

변 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Scheffe검증
진로결정수준	집단간	3064.381	2	1532.191	16.466***	상>중>하
	집단내	46154.673	496	93.054		
	전체	49213.054	498			
진로정체감	집단간	3042.676	2	1821.338	16.936***	상>중>하
	집단내	53664.415	496	107.544		
	전체	57307.092	498			

*** p<.001

〈표 2〉 또래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

변 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Scheffe검증
진로결정수준	집단간	1523.937	2	761.968	7.924***	상,중>하
	집단내	47695.117	496	96.160		
	전체	49219.054	498			
진로정체감	집단간	2441.929	2	1220.964	11.105***	상,중>하
	집단내	54865.163	496	109.950		
	전체	57307.092	498			

*** p<.001

애착수준에 따라 진로발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위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 두 집단과 또래애착수준이 낮은 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여 또래애착수준이 안정적일수록 불안정한 또래애착에 비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점이 지지되었다.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 애착 및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

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 애착 및 또래애착의 예언력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의 예측

에 미치는 부모 및 또래애착의 독특한 기여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분석에 성별과 고저학년년을 포함시켰다. 우선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먼저 알아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부모애착, 또래애착,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진로정체감 모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애착,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진로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은 부모애착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또래애착과는 정적 상관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고저학년은 부모애착과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세 가지 변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이

〈표 3〉 성별, 고저학년, 애착, 및 진로발달변인간의 상관

	성별	고저학년	부모애착	또래애착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성별	-					
고저학년	-.333***	-				
부모애착	-.062	.097*	-			
또래애착	.094*	.003	.341***	-		
진로결정수준	-.141**	.078	.273***	.192***	-	
진로정체감	-.184***	.074	.268***	.206***	.830***	-

*** p<.001 ** p<.01 * p<.05

〈표 4〉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SE	Beta	t
진로결정수준	부모애착	.075	.156	.030	.235	5.143***
	또래애착	.086	.094	.039	.113	2.466*
진로정체감	부모애착	.072	.160	.033	.224	4.922***
	또래애착	.087	.120	.042	.130	2.859**

*** p<.001 ** p<.01 * p<.05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또래애착이 더 안정적인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성별 및 고저학년에 따라 부모 및 또래애착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별과 고저학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부모애착의 설명량은 약 7.5%이고, 또래애착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1%였다. 그리고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애착의 설명량은 7.2%이고 또래애착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5%였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과 고저학년별로 나누어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살펴보면, 저학년 남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애

착의 예언력을 알아본 결과 또래애착만이 7.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진로정체감에 대해서는 부모애착만이 9%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고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 모두 부모애착만이 각각 15%와 10.9%씩을 설명해주었다. 한편 저학년 여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 모두에 있어 또래애착만이 각각 8.1%와 10.2%씩을 설명해주었으며, 고학년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학년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진로변인들에 대해 부모애착만이 각각 7.9%와 6.2%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을 예언하는데 있어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비해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학년일 경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관없이 부모애착만이 진로발달변인들을 예측해주어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애착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저학년일 경우에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관계없이 또래애착만이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해주고, 진로정체감에 대해서는

<표 5>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에 대한 애착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SE	Beta	t
저학년(남)	진로결정수준	또래애착	.076	.203	.089	.275	2.289*
	진로정체감	부모애착	.090	.218	.086	.301	2.523*
고학년(남)	진로결정수준	부모애착	.150	.283	.051	.387	5.509***
	진로정체감	부모애착	.109	.258	.056	.330	4.603***
저학년(여)	진로결정수준	또래애착	.081	.247	.067	.285	3.698***
	진로정체감	또래애착	.102	.297	.071	.319	4.206***
고학년(여)	진로결정수준	부모애착	.079	.160	.055	.281	2.924***
	진로정체감	부모애착	.062	.154	.060	.249	2.582*

*** p<.001 * p<.05

성별에 따라 설명해주는 애착종류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비해 진로발달에 있어 더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학년과 성별에 따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중요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모 및 또래애착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정체감에서의 집단차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애착점수 상위 30%와 하위 30%로 분류한 뒤 애착수준에 따라 (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62명), (2) 부모애착은 높고 또래애착은 낮은 집단(28명), (3) 부모애착은 낮고 또래애착은 높은 집단(23명), 그리고 (4)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72명)으로 구분하였다. 이 4집단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관계를 일원변량분석하였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Scheffé 검증한 결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나머

지 세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성별과 고저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부모애착은 높지만 또래애착은 낮은 집단과 부모와 또래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을수록 진로발달도 높았으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낮을수록 진로발달이 낮았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역시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집단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표 6> 부모 및 또래애착수준과 진로발달변인들간의 변량분석

변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Scheffé검증
진로결정 수준	집단간	3040.677	3	1013.559	11.650***	상상>상하,하상,하하
	집단내	15747.810	181	87.004		
	전체	18788.486	184			
진로 정체감	집단간	4302.086	3	1434.029	14.067***	상상>상하,하상,하하
	집단내	18553.704	181	101.943		
	전체	22855.790	184			

*** p<.001 ** p<.01 * p<.05

상상 :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 상하 : 부모애착은 높고 또래애착은 낮은 집단
 하상 : 부모애착은 낮고 또래애착은 높은 집단 하하 :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낮은 집단

모두 안정적인 집단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은 확인되었으나, 부모애착이 높고 또래애착은 낮은 집단이 또래애착은 높고 부모애착은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애착관계를 탐색하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가설의 전반적인 방향과 일치하게, 결과들은 부모와 또래에게 애착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갖고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되었다.

우선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변량분석과 상관분석한 결과를 통해 검토해보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학생들이 자기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결정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과 세상을 훨씬 깊이있고 자유롭게 탐색하며 그로 인해 더 용이하게 진로선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Josselson(1987)과 Gianakos(1999)의 연구결과 및 Blustein 등(1995)의 가설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여학생

들이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발달을 보인다는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결정정도가 높다는 국내선행연구결과들(김동준, 1997 ; 이영선, 1999 ; 허자영, 1996)과 일치한다. 하지만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Felsman와 Blustein(1999)의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선택의 폭이 훨씬 더 제한되어 있고 여학생이 그 직업을 성취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남학생보다 낮다는 사회적 현실과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가사와 육아를 포함하는 가정적 역할 때문에 직업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점과 관련될 수도 있겠다(고향자, 1992). 한편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을 때,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을 더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적 맥락에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자로부터 위계적인 보호와 지지를 받는데서부터 점차 또래로부터 상호 보호와 지지를 주고 받는 시기로 관계가 전환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입각해 볼 때 대학 1, 2학년에 비해 대학 3, 4학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진로와 관련된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부모요인이 주는 영향이 더 강해지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부모 및 또래애착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검토해보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발달변인들을 함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고저학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학년 여학생인 경우 또래애착이 더 중요한 진로발달의 예측변인이 되는 반면, 고학년이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애착만이 진로발달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부모로부터의 해방감과 함께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려는 자신감으로 인해 부모보다는 부모이외의 인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막연한 욕구나 소망에 근거한 탐색과 선택보다는 진로의 성공적인 선택이 이후 인생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인식하에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진로문제에 대처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의 여부를 결정하는 진로결정은 결국 졸업에 임박한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힘든 삶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이는 힘든 상황에서는 정서적이든 물리적이든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래보다는 정서적 안전기지를 제공해주는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Bowlby(1988)의 입장과 일치한다 하겠다.

한편 진로상담실제에 있어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고려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또래애착이 낮은 여학생들의 경우 또래애착 증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학년이거나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부모애착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이를 진로발달변인들과 관련해 분석한 결과는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높은 집단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이후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학년이거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고 부모나 또래애착 중 어느 한 측면이 불안정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남학생이거나 고학년일 경우에는 부모든 또래든 애착의 어느 한쪽 측면이라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진로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은 높지만 부모애착은 낮은 청소년들이 부모애착은 높지만 또래애착은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잘 적응한다는 Laible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선행연구들(Black & McCarthney, 1997)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외국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집단의 피험자수가 충분치 못함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적 수행모델에 근거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애착의 질이 이후 또래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의 이론과 함께 숙고해볼 때,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안정적인 또래애착을 이끄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적인 인생주기를 통해 성장해 오면서 부모변인뿐 아니라 기타 여러 환경적이고 맥락적인 요인들의 중재 및 개입효과로 인해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또래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진로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있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기타 개인차와 맥락적 요인들을 좀 더 탐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한국적 상황의 문화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애착발달과정들을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애착과 진로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긴 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들에서는 애착변인과 진로발달과의 관련성만을 밝히는 것에 국한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의 연구참여방식이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찰이나 면접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질적 접근의 연구방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집단에서의 상호타당성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애착이 진로발달에서 갖는 기능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애착관련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를 하고자 할 때 적성탐색이나 자존감 및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 외에 보다 근원적으로 부모와의 관계탐색 및 또래와의 관계증진 프로그램 등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실제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에 좀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동준(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1996).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박경, 임경화(1998). 서울여대생의 진로계획 및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1, 5-42.
 이기학, 한종철(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상담 및 심리치료, 10, 167-189.
 이영선(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불안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 상담 및 심리치료, 11, 239-259.
 이정희(1998). 대학생의 심리적 변인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장휘숙(1997a).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 80-97.
 장휘숙(1997b).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 88-106.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insworth, M.(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llen, J. P. & Land, D.(1999). Attachment of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319-335). New York : Guilford.
 Arn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eest, M. & Baerveldt, C.(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om peers. *Adolescence*, 34, 193-201.
- Black, K. A. & McCarthey, K.(1997). Adolescent females's security with parents predicts the quality of peer interactions. *Social Development*, 6, 91-110.
- Blustein, D. L.(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11-117.
- Blustein, D. L., Presioso, M. S., & Schultheiss, D. P.(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D. Scharff(199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pp.381-392). Morthvale : Jason & Aronson Inc.
- Bretherton, I.(1995).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 *Attachment theory :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pp.45-84). NJ : The Analytic Press Inc.
- Dekovic, M. & Meeus, W.(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Felsman, D. E. & Blustein, D. L.(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 Greenberg, E. & MaLaughlin, C. S.(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7, 121-139.
- Greenberg, M. T., Siegel, J. M., Leitch, C.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ng and Adolescence*, 12, 373-386.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319-335.
- Kenny, M. E. & Rice, K. G.(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July, 433-456.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Lapsley, D. K., Varshney, N. M., & Aalsma, M. C.(2000). Pathological attachment and attachment styles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3, 137-155.
- Marvin, R. S. & Britner, P. A.(1999). Normative development : The ontogeny of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 applications*(pp.44-67). New York : Guilford.
- Matos, P. M., Barbosa, L., Alneida, H. M., & Costa, M. E.(1999). Parental attachment and identity in Portugues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3, 805-818.
- Noom, J. F., Dekovic, M., & Meeus, W. H. J.(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3.
- O'Brien, K. M.(1996). The influence of parent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Linn, S. G.(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O'Koon, J.(1997).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image. *Adolescence*, 32, 471-482.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pp.121-178). San Francisco : Jossey-Bass.
- Water, E., Weinfeld, N. S., & Hamilton, C. E.(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71, 703-706.
- Young, R. A., Antal, S., Bassett, M. E., Post, A., DeVries, N, & Valach, L.(1999). The joint actions of adolescents in peer conversations about career. *Journal of Adolescence*, 22, 527-53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Chayeun Kang Kyung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in late adolescence and to relative importa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for thes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499 college students were participated and were asked to response to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or attachment and career development.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higher secure parent and peer attachment were, the more students explored and believed him/herself and, based on this, the higher effectively possibility of decision in career choice were. Second, the predictive power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for career development differed by gender and grade : For the group of low grades and female, peer attachment was a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 while for the group of high grades, no matter what their gender, only parent attachment was a predictive variable for career development. Third, to achieve a successful career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both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were important : The group in which students had high score for both parent and peer attachment had more possibility to achieve a positive career development than the group in which students had low score for both parent and peer attachment. Especially, for the group of high grades or male, this characteristics revealed to be dominated than in group of low grades or female. Finally, the suggestion and limitation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decision, career identity,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부록. 부모애착, 또래애착,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전체	499	95.9163	14.9519
	남학생	240	96.8797	13.6808
	여학생	251	95.0268	16.0112
	저학년	223	94.2946	14.4942
	고학년	276	97.2230	15.2109
또래애착	전체	499	95.9245	11.5844
	남학생	240	94.7967	12.1910
	여학생	251	96.9655	10.9148
	저학년	223	95.8884	11.7061
	고학년	276	95.9532	11.5065
진로결정수준	전체	499	50.6774	9.9415
	남학생	240	52.1333	9.8060
	여학생	251	49.3282	9.8942
	저학년	223	49.8161	9.7476
	고학년	276	51.3732	10.0592
진로정체감	전체	499	49.1474	10.6951
	남학생	240	51.1950	10.3863
	여학생	251	47.2567	10.6471
	저학년	223	48.2723	10.3898
	고학년	276	49.8525	10.9024